

	인도 (뉴델리)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승창 소장 이영훈 대리
		일시	2020.11.24.

CEPA Insight

- 인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급증, 2020년 8월 기준 7억 5천만명 돌파
-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예상 경제성장률, 7% → 8.5% 상향 조정
- 인도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활용 방안 수립 필요

< 2020년 10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월 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월 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9,555,659천불	-26.4%	4,109,955천불	-10.2%	5,445,704천불
충남	1,172,463천불	-31.4%	109,851천불	-52.0%	1,062,611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I

인도 內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급증 및 경제 회복 정상화 기대

- 2015년 인도 정부의 'Digital India' 프로젝트 시행 이후, 인터넷 가입자 수 급증
 - 1995년 8월 15일 인도 內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, 2020년 8월 31일 기준 총 가입자 7억 5천만 명 돌파
 - ※ 인터넷 가입자 추이: (2016년) 3억4천만명→(2017년) 4억2천만명→(2018년) 5억6천만명→(2020년) 7억5천만명
 - 전체 가입자 중 61%는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, 마하라슈트라, 안드라프라데시, 타밀나두, 구자라트, 카르나타카 지역에서 전체 가입자의 35% 차지

<지역별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>

서비스 지역	2016년 3월	2018년 9월	2020년 6월
마하라슈트라	2.9억 명	4.6억 명	6.4억 명
안드라 프라데시	2.5억 명	4.4억 명	5.9억 명
타밀나두	2.8억 명	4.1억 명	5.1억 명
구자라트	2.1억 명	3.6억 명	4.5억 명
카르나타카	2.3억 명	3.6억 명	4.6억 명

(출처: 인도통신규제국(TRAI))

- 2020년 6월 기준, 무선 가입은 7.26억, 유선 가입은 2.3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, 도시 지역 가입자의 93%는 스마트폰 및 동글(dongles)을 활용한 무선 가입이 93%를 차지
- ※ 동글(Dongles): 컴퓨터에 연결하는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인 브로드밴드 무선 어댑터로 데이터 전송 가능
- 국제정보기술연구소 방갈로르 소속 데바브라타 다스교수는 "교육·경제·헬스케어 접근성이 인터넷 기반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필수품이 되었다"고 언급 (출처: 한국무역협회)

인도 시장진출 및 해외 마케팅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인도 통상사무소 ☎ 070-7528-8041 / ✉ hasch73@cepa.or.kr,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☎ 041-539-4532

○ 'Reliance Retail Ventures', 약 63.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

- 'Reliance Industries 그룹'은 지난 2개월 동안 9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전체 지분의 10%에 해당하는 약 63.7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공 발표 (출처: Reliance Industries)
- 이번 투자를 통하여 인도 내 최대 유통업체인 'Reliance 社'가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시장으로 연결하는 'Reliance Retail Ventures'를 보다 공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
- 'Reliance Retail Ventures'의 이사(Isha Mukesh Ambani)는 성명에서 "전자 상거래에 중점을 두고 수백만 명의 상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인도 소매 부문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"고 밝혔음

※ 지난 8월 'Future 그룹'의 리테일·물류부분 등 인수 및 올해 초 'Jio'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부문의 일부 지분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전략 추진 중 (출처: Bloomberg)



○ 인도, 코로나 이후 예상보다 빠른 기간에 인도 경제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 (출처: Barclays)

-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Covid-19 확진자 추세선 곡선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, 예상보다 빠르게 인도 경제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

※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이전 7%에서 8.5%로 상향 조정 (출처: Barclays)

- 엄격한 봉쇄령(LOCK DOWN) 이후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회복 중

※ Barclays는 인도 GDP 성장률이 인도중앙은행(RBI; Reserve Bank of India)의 예측보다 한 분기 빠른 現 회계연도의 3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



인도 시장진출 및 해외 마케팅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인도 통상사무소 ☎ 070-7528-8041 / ✉ hasch73@cepa.or.kr,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☎ 041-539-4532

II

향후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

- 인도 內 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,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전략 추진 필요성 확대
 - 계속되는 인도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온라인 유통(쇼핑)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 內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적절한 방향성 및 전략 도출 필요
 - ※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019년 9천만 명에서 2025년까지 2억2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(출처: 인도 브랜드자산재단, IBEF)
 - ※ 온라인 마켓(E-Commerce)을 활용한 수출 투자 확대 및 이에 적합한 현지 진출전략 개발 필요성 확대
 - 특히, 인도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맞춤형 웹사이트 및 제품 활용 방안 개발 필수
 - ※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구축, 온라인 전용 아이템(콘텐츠) 개발 및 제품의 현지화 등
- 단, 온라인마켓 입점에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,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현지시장 진출 전략 필요
 - 화장품, 식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은 인증 취득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, 현지 수입업자 및 에이전트와의 협업이 중요하고, 정부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
 - ※ 충청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 글로벌 전자무역마케팅지원, 소비재연계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등 활용 가능
 - 특히, 충청남도 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는 제품별 필수 인증 등 현지 시장진출 정보 제공,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이 가능하며, 매칭된 바이어와 지속적인 수출 상담을 지원함
 - ※ 인도 뉴델리 통상사무소 전용 홈페이지(cepaindia.com)를 활용한 현지 시장정보 획득 및 바이어 정보 획득 가능. 끝.